

1/15(토) 창세기 48-50장 반드시 돌아가라!

야곱은 말기신 사명의 구간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.

이제부터 그는 <야곱>이 아니라 <이스라엘>으로 말합니다(48:8, 49:2).

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, 민족의 시조로서 말하는 것입니다.

<야곱: 이스라엘>은 요셉(아들들)의 소속과 정체성을 확실히 합니다.

그들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언약공동체의 일원입니다(48:5-6, 8-9, 16).

요셉 자손은 반드시 <조상의 땅>으로 돌아가야 합니다(48:21).

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하고 각각의 몫을 줍니다.

이로써 요셉은 두 몫 즉, 통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.

* 요셉족속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으며, 북 왕국의 구심점이 된다(수16-17, 18:5).

그러나 장자권 중 통치권과 계보는 유다에게 돌아갑니다(49:10).

유다 자손 가운데 왕과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(시78:67-68 참고).

유다지파의 통치에는 기한이 있습니다. <실로가 오시기까지> 즉,

<참 통치자 메시아>가 오실 때까지입니다(49:10, 겔21:27).

하나님은 어떤 자가 기업과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시고,

어떤 자가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(49장).

축복과 저주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삶,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
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듯(47:9), 그의 아들들도, 우리 모두도

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.

야곱은 자신을 선조들과 함께 장사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(49:29-32).

요셉 역시 자기 유골을 약속의 땅에 묻으라고 유언합니다(50:24-25).

야곱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. 바로와 고관, 온 이집트가 슬퍼했습니다(50:3, 7, 11).

요셉의 영향력은 아직 막강하지만, 새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(출1:8).

그들은 약속의 땅,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.

본문을 통독하며 묵상해 보십시오. 나는 분명한 소속과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?

❶ 나는 <애굽>에서의 지위와 권력, 풍성함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정착합니까?

❷ 나는 <약속의 땅>을 늘 기억하며 사명의 구간을 달려가고 있습니까?

❸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창세기 48-50장 (17:52)